

제55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 여러분,
이상훈 재향군인회장과 군 원로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6·25전쟁 55주년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한반도 전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를 벗어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서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기적을 이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수호한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을 비롯한 세계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지금도 평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입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동북아 세력판도에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평화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각축 대상이 됐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착실히 키워 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거듭 확인했듯이 한·미동맹 또한 매우 굳건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핵문제입니다. 6자회담은 곧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고, 중국·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은 소강상태에 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습

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확대, 서해상의 평화 구축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공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이 땅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전용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